

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한다

제조업 전반 AI 전환 가속...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산업부 R&D 우수기업 대상 7000억원 규모 보증+대출

정부가 국내 혁신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돕고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산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전담은행의 대규모 출자와 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산업성장

펀드 출범식 및 산업금융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성장금융 등 금융기관과 테슬라, 에프알티로보틱스 등 AI·로보틱스 분야 혁신기업, 벤처캐피탈, R&D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운영돼 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산업성장펀드'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제3기 산업성장펀드 출범과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마련된 산업금융 프로그램은 '투자'와 '보증·융자' 두 축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 축인 산업성장펀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기반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민간펀드다.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6200억원)과 중소기업은행(495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1150억원 출자를 약속했다.

해당 펀드는 제조 AI 전환(MAX),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등 주요 산업정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1호 펀드인 'MAX 산업대전환 혁신펀드'는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R&D 전담은행의 출자 10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최대 5000억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6월 중 운용사를 모집한다. MAX 혁신펀드 이후로는 5국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역 산업 활력펀드, 업종별 생태계펀드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축으로는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하게 완료한 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보증·보험과 저리 대출을 패키지로 묶은 우대 금융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하나

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산업성장펀드 출자와 별도로 총 47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 및 무역보증·보험(보증비율 100%)을 제공한다.

보증받은 기업은 협약 은행을 통해 저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관기관 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을 거쳐 7월 중 공고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2부 산업금융 전략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 대한민국 산업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금융의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김정관 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는 금융권, 산업계, 정부가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 기업의 성장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위험과 성과를 더불어 공유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AI와 제조업의 진정한 융합, 지역경제 동반성장 등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성큼 앞당겨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금융기관과 R&D 지원기관도 산업정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자율발급 FTA 교육 21일 원산지증명 실무 중심 등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가 오는 21일 광주상의 22의실에서 '자율발급 FTA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과 달리 수출자가 직접 협정문서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협정별 작성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검증 부담도 뒤따르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최근 지역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자율발급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동아관세법인 신상태 관세가 강의를 맡아 자율발급 개념 및 관련 FTA 협정, 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FTA 활용 실무, 자율발급 원산지검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교육 수료 기업에는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이 부여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20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FTA 교육 외에도 컨설팅과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전력은 최근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 시대' 연다

한전·민간발전사 협약...전력망 건설비 3조6000억 절감 송전거리 416km ↓·주민 갈등 최소화...고효 등 확산 추진

한국전력은 최근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IP(해금·해송), KREDO(신안블루), DWO(청해진), 조도풍력발전(외병도), 다도풍력(운림)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비용 분담과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 공동접속 사업은 대규모 해상풍력 전력을 섬이나 해안가에서 직접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에 연결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들이 내륙 변전소까지 장거리 송전선로를 개별 건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변전소와 HVDC 변환소를 통합 구축하고 접속설비도 공동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703km 규모였던 전력망 건설 거리는 287km 수준으로 줄어 약 416km가 단축될 전망이다. 투자비 역

시 한전과 발전사를 합쳐 약 3조6000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의 의미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선 '계통 혁신 모델'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돼 온 송전망 중복 건설과 주민 반발, 환경 훼손 문제를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번 해남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고창·고흥·영흥·태안 등 전국 9개 공동접속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전선설비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국가 단위 전력망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공단-노동청, 불시점검·기술지원 나서 끼임사고 잇따라...정식감독 연계 등 강력 조치

광주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집중 점검주간 일환으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기술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는 기계 설비와 산업용 로봇 등을 활용한 작업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8일에는 부품 기계 가동 중 산업용 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튿날에는 골재 설비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압축기에 끼이는 사고가 이어졌다.

또 10일에는 식품 기계 정비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제조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패트를 점검과 기술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현장 안전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난 12일과 15일에는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이 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CIS케미칼㈜ 등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5대 중대재해 12대 핵심 안전수칙' 가운데 끼임 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기계 가동 중 방호장치 설치 상태와 비상정지 장치 작동 여부,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절차 준수 여부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노동당국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홍보물을 활용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개선 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노동청 정식 감독으로 즉시 연계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은 "최근 끼임 재해 사례를 보면 기계 정비나 보수 작업 과정에서 방호장치를 임의로 우회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